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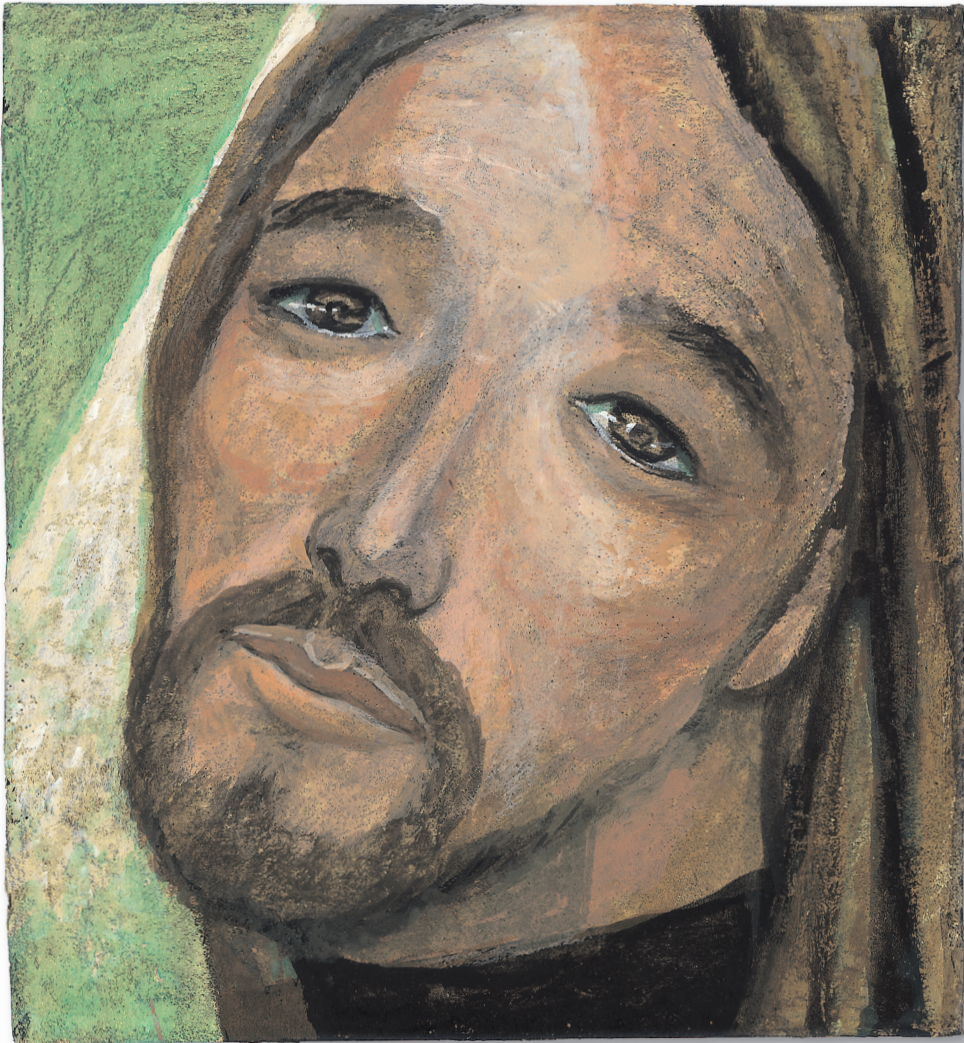
대구 주보

연중 제14주일 2017. 7. 9.(가해) 제2059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28.30) 회개는 축복입니다. 일상에서 하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회개의 초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_ 정미연 소화데레사 작

제1독서 즈카 9,9-10

제2독서 로마 8,9,11-13

복 음 마태 11,25-30.

화 답 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김성은 요한 신부 | 서재본당 주임

얼굴 몇 번 마주친 수녀님께서 저보고, “신부님, 데레사 수녀님 아세요?”라고 묻습니다. “네?”라고 말하며 생뚱맞은 표정을 했더니 “박 아무개 데레사 수녀님요.”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고는 “아! 네, 잘 압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수녀님께서서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 밝은 표정으로 “제가 데레사 수녀님 친구 수녀인데, 우연찮게 신부님 이야기를 했더니 꼭 안부 전해달라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야 비로소 제 마음은 경계심이 없어지고 표정은 해맑게 변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고마운 분을 잘 안다는 말은 상대방을 다르게 보게 합니다. 그 이후 그 수녀님과 마주칠 때는 더 이상 낯선 수녀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은 관계를 새롭게 이어줍니다.

성부 하느님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이 어렵듯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느님을 알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성부와 당신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 또 당신만이 성부를 온전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뜻

하시는 사람에게 성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후반부에 성부를 알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율법학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하느님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내세운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신다면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 당신이 뜻하신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알게 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지혜롭지 않고 슬기롭지 않아도 됩니다. 철부지처럼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뵈옵는 순간, 모든 것은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부에게서 받은 당신의 권한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말했던 것처럼 말하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려고 힘써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이 가볍다.”라는 말씀이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김은**

쉼이 필요한 우리의 청년들

안동욱 마태오 신부 | 4대리구 청년·청소년담당

제가 4대리구 청년·청소년 담당으로 부임하고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들은 말이 “쉼이 필요해요, 힐링(Healing)하고 싶어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말일 것입니다.

4대리구의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을 찾아 고향과 타향의 서글픈 이동을 반복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4대리구 각 본당 청년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방학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것이 저희 대리구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쌓아야 하는 스펙(성적, 자격증, 경력 등)을 늘여가기 위해 오늘도 고됨의 이동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고됨의 여정에 우리 대리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 사랑하는 이와 결혼, 비워져 있는 지갑을 직접적으로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잠시 세상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갈 쉼터가 되어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4대리구는 각 지역 청년들의 벗이 되어 줄 수 있는 지역별 청년 담당 신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대리구에서는 신부님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청년들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회장단과의 만남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고 그들의 쉼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소울스테이(Soul-Stay)’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4대리구는 가톨릭적 분위기의 쉼과 힐링을 주기 위해 소울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우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호응도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치열한 삶의 여정에서 잠시 벗어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피정 형식과는 조금 다른 ‘음악과 함께하는 남다른 피정’이 있습니다. 성가와 말씀들을 통해 청년들이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짐들을 조금이나마 털어 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시기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이라는 이 시기는 위로와 격려, 쉼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우리 청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쉼 안에서 함께 힘내기를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

순교자 집터 위에 내린 선교의 뿌리 가실성당

경부고속도로에서 왜관나들목을 빠져 나와 왜관공단 쪽으로 10여분을 달리면 낙동강변이 내려다보이는 자그마한 언덕 위에 이름처럼이나 아름다운 시골 성당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11번째, 대구대교구에서는 계산성당에 이은 두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자 경상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바로 가실성당입니다. 1895년 설립될 당시 이름이 ‘아름다운 집’이란 뜻을 지닌 가실성당이었지만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낙산성당’으로 바뀌었다가 2005년에야 비로소 원래 이름인 ‘가실(佳室)’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경상도 지방 선교책임자로 부임한 로베르(김보록) 신부가 신나무골에 대구본당을 설립하고 선교에 박차를 가하며 경상도 북부지역 선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고자 신선했던 것이 가실성당입니다.

초대 본당 주임으로 부임한 빠이아스(하경조) 신부는 사목하러 다니려면 경상도 전체를 관통하는 낙동강 뱃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현재 가실성당이 들어선 자리인 이곳을 성당으로 사용하며 사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설립 당시 경상도 북서부 일대와 충청도 황간, 전라도 무주를 아우르는 선교의 요람이었던 가실성당은 관할 공소만 해도 30개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본당 설립 6년 만에 김천본당(현 김천 황금본당)을 분가시킨 것을 시작으로

점촌, 퇴강(현 함창본당 관할공소) 왜관 본당 등 영남서북부지역에 자리 잡은 수많은 본당의 모태가 되었으며 1952년 덕원과 연길에서 피란 온 성베네딕도회가 왜관수도원을 짓기 전까지 약 6년간 이곳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성당의 현재 건물은 1922~1924년에 지어진 고딕식 벽돌조 건물로, 서울의 명동성당과 대구의 계산성당을 설계한 파리의방전교회 소속 프와넬(박도행) 신부가 담당했으며 중국 기술자들이 벽돌을 현장에서 직접 구워서 성당을 건립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군인들이 임시 병원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다행히도 피해를 입지 않아 옛 유물과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들여 온 것으로 본당 주보인 성녀 안나상과 종, 선교사들이 직접 미사주를 만드는데 썼던 포도 착즙기, 100년이 넘는 교적 등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유물들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는 독일 작가 에기노 바이너트의 ‘예수님의 삶’을 주제로 한 스테인드글라스 작품과 ‘엠마오의 제자들’(루카 24, 13-35)을 칠보로 형상화한 감실이 설치되는 등 성당 자체로 아름다운 현대 종교 미술의 전시공간이자 소중한 근대 문화유산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성당과 현재 유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사제관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근대 건축사와 교회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48호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영화 <신부수업>의 촬영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THOU SHALT NOT KILL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BEAR WITNESS
THOU SHALT NOT COVET

사랑의 계명, 십계명

부부의 십계명, 직장인의 십계명 등 우리 주변에는 십계명을 응용한 삶의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이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은 그저 구약성경에서나 전해지는 과거의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하느님의 계명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계명을 주요 기도문 안에 포함시켜 신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두 곳에서 전하는 이 열 가지 계명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간 행위에 관한 기본 법규들의 핵심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세 계명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람이 하느님께 대하여 지킬 계명입니다. 그리고 뒤의 일곱 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 즉 사람들이 서로 지켜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전체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는 통일성이 있으며 하나의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계명은 분리해 낼 수 없으므로 하나의 계명을 어기면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흠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그 기본 내용들에서 중대한 의무를 제시해 줍니다. 그 계명들은

본질적으로 불변하는 보편적 진리이므로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아무도 면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새 계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옛 계약인 십계명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십계명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지키라고 하시고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 19,16-22 참조) 또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마태 22,37-39)라고 하심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기본정신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맥락에서 결국 사랑의 계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의 실천이 곧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경의 장, 절이 후대에 붙여진 것처럼 오늘날의 십계명은 유대교 학자 필론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의해 번호를 붙여 열 개의 계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주로 가톨릭과 루터교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방식을, 정교회나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 여타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필론의 방식에 따라 구분된 십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단지 분류방법에 따라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교구장 동정



7.2(일) _ 청도성당 교육관 축복식 및 견진성사 (10시 30분)

7.7(금) _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연수 개막미사 (15시, 꾸르실료교육관)

총대리 동정



7.2(일) _ 봉덕성당 40주년 감사미사 및 견진성사 (10시 30분)

7.3(월)~15(토) _ 서품 10년차 사제 연수 참석 (동유럽)

교구 및 기관 행사

7. 10(월) _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 봉사자 연수 (10시, 교육원 다동 대강당)

7. 13(목) _ 37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야간) 5주차 (19시,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
교황청 시스티나 성당 합창단 공연 (19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

7. 14(금) _ 118차 선택주말 (16일까지, 꾸르실료교육관)

7. 15(토) _ 초·중등교직원협의회 임원단 연수 (청하면 청계리)

7. 16(일) _ 가나 강좌 (10시, 가톨릭대학병원 마리아관 1층)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소람상담소, 053)250-3100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역시 가뿐해

박성규 엘리지오



미 사 안 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0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7월 10일(월) 19:00 성모병원 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0일(월) 11:00 황성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1일(화) 11:3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10일(월) 11:00 신평성당	대구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7월 12일(수) 18:00 별관 4회합실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7월 13일(목) 19:00 성익여고 경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7월 15일(토) 10:00 월성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10일(월) 11:00 월성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7월 15일(토) 11:00 성모당

대리구 소식

2대리구 젊은이 기도 모임(Hello 하느님)

일시: 7.12(수) 19:30 미사 후

(매월 둘째주 수요일)

장소: 주교좌범어대성당 프란치스코성전

진행: 성바오로딸수도회

준비물: 성경 / 문의: (010)2503-5185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7.15(토) 14:00, 서울 개화동 분원

문의: (010)3800-1579

예수회 성소 식별 피정 및 수련회

기간: 7.13(목)~16(일) / 16(일)~19(수)

장소: 여주 프란치스코수녀회 피정의집

문의: 이인제 수사, (010)2874-9203

효령하늘집_개인 피정

밤기도: 매월 둘째주 목

산내 치유 피정: 매월 셋째주 화·수

시니어 피정: 격월 넷째주 화·수

지도: 정기모 신부 / (054)382-0091

교육 | 모집 | 기타

대가대 차이나포럼 제26기 원우 모집

개강: 9.18(월) 19:00(현재 접수중)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석식,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0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꽃동네 성소자 하계 수련 대회

기간: 7.28(금) 17:00~30(일)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대상: 고등학생~심신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남녀 / 참가비: 3만원

신청: (043)879-028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29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여캠프 모집

출발: 7.22 / 7.29 / 8.26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소울스테이 여름 가족 캠프

기간: 8.11(금)~13(일) 2박 3일

장소: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준비물: 텐트(야영 가능) / 회비: 9만원

향심기도 2박 3일 피정: 8.4(금)~6(일)

문의: (010)5332-7587

가톨릭신문사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9.2(토)~15(금) 13박 14일

장소: 이태리, 그리스, 발칸반도

(메주고리예) 등

경비: 내측 558만원, 발코니 588만원

문의: (02)780-0832 / www.cttour.org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005-9028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기간: 단기, 장기 / 대상: 초5~중3

주최: 그리스도의례지우수도회

문의: (02)2258-8983

http://www.oakinternational.co.kr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SINCE 1985 안지랑 국민은행 3층
성가정결혼
권종문(파비올라)
053)474-0025
010-3818-0818

나비피부과
(여드름/기미/모공)
피부과 전문의 / 원장 김창욱(라파엘)
053.253.7582
동성로 롯데영플라자 맞은편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아토피·에민피부 특화병원
www.dalsungskin.com
달성피부과·성형외과
아토피 체질치료/아토피 피부관리/레이저
민감성피부 성형수술/비만크리닉
원장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이탈리아 성지순례 모객중
(9월 11일 ~ 9월 22일)
☎ 053-427-7090
안요한, 김마리아막달레나
http://www.hantourcatholic.com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 의·원장 정순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1~중2: 7.31(월)~8.2(수), 경주수련원
중3~고2: 8.2(수)~8.4(금), 경주수련원
고3·대학·일반: 7.19(수)~21(금), 한티
참가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신청: 각 본당사무실 / 마감: 7.9(일)

7월 함께 꿈 미사

일시: 7.19(수) 19:30, 삼덕성당
주제: 한국사회 불평등과 청년실업
강사: 오찬호 작가(진격의 대학교 저자)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2박 3일 성령 세미나

기간: 7.28(금) 14:00~30(일) 15:30
8.11(금) 13:00~13(일) 15: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
신청비: 12만원(차량이용비: 1만원 별도)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2017년 마리아폴리

기간: 8.11(금)~14(월) 3박 4일
장소: 경주 코모도호텔
신청: 7.10(월)부터 선착순
주최: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하계 젊은이 성령 세미나

기간: 8.25(금)~27(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만19세~40세 청년
신청: <http://www.dcy.co.kr>
주최: 교구 청년국 젊은이기도회

문의: 김정훈, (010)9584-8595

교육 | 모집

7월 가나 강좌

일시: 7.16(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기간: 8.29~12.5 매주 화 10:00~17:30
9.2~12.17 매주 토 10:00~17:30
대상: 타인의 돌봄에 관심있는 분
비용: 80만원(선착순 8명)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143-5508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뿌리 깊고 샘이 깊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전국 최대규모 가톨릭계 대학교
의예·간호 포함 의료보건 특성화대학
기간: 9.11(월)~15(금)
문의: 850-2580 / <http://ibsi.cu.ac.kr>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화) 바이올린, (목) 성가반주법
문의: 가톨릭문화관, 476-6211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교전무용장구오카리나, 가곡성가, 성가반주, 오르간클래식기타, 한국화유화, 발성법, 왕초보관공영어, 사범자격과정꽃꽂이, 제대꽃꽂이, 미술심리상담사2급1급, 수지침, 초급원어민영어 / 신청: 254-6115

더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352차 ME주말: 7.28(금) 19:00~30(일)
353차 ME주말: 8.4(금) 19:00~6(일)
354차 ME주말: 8.18(금) 19:00~20(일)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중국친선교류 평신도 회원 모집

동아리(중국어 / 성경, 노래, 회화 등)
월례회(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친교)
중국 / 성지순례, 문화여행, 교류활동
대상: 중국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한중친선협회, (010)2662-1560

채용 | 안내

대구시교육청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상담사 채용

자격: 관련학과 전공자

문의: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474-1984

<http://www.jesusclub.or.kr>(공지사항)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장재웅(바오로)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이용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가족문제

방법: 전화 및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이시우 신경외과
<http://척추외과외과>
척추 디스크 협착증 · 질환전문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사도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강!보고염내과
원장! 내과전문의 조재현 (세제요한)
위·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당뇨병·고혈압 및 내과질환
Tel. 053 791 7585
지하철 2호선 신매역 경산방향 5번 출구
신한은행 사지점 건물 3층 (달구벌대로 3218)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이제는 안전하게 파쇄!!
시니어문서파쇄사업
시니어문서파쇄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대구서구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서구시니어클럽
문의 ☎ 053)563-1025 노현영 사회복지사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당뇨 고혈압! 합병증 예방이 우선입니다.
수내과
[인공신장실/건강검진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진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131만원 보조금 전문상담
류(다나엘)/청능사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수맥홍침대
창업 26주년 세일 행사!
공장직판, 거실소파
☎1588-5335